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psTCI)”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진 균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psTCI)”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지도 오 병 훈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진 균

# 박진균 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 월 일

## < 감사의 글 >

소아 정신과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8개월이 지나고 있다. 아이로 빗대어 말하자면 이제 겨우 손잡이를 붙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게 되는 나이, 몇 단어를 이야기하며 조금씩 세상 사물들을 규정하려는 나이, 즐거움, 기쁨, 부끄러움 등 감정을 조금 알게 되는 나이가 된다. 훌륭하지 못한 소아 정신과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아이를 맡겨준 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이다.

소아 정신과를 공부하는 것은 내게 실타래 얽힌 듯 지저분한,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다락방을 탐험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거기에는 내가 오래 전에 저질러놓고 눈감아버린 잘못과, 내 어머니의 회한과 내 아픔이 나를 기다리곤 한다. 그러나, 공부가 무지(無知)나 부정(否定)보다 좋은 것은 그 과정에서 희망을 발견하곤 한다는 것이다.

기질에 대한 연구는 정말 내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하나님만든 피조물이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제각각 숨쉬고 있지 않겠는가?

이 작은 논문을 쓰는 동안 감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우와 놀아주는 무던한 아내 김신진에게 제일 고맙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새삼 고맙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다준 장모님께도 각별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논문의 시작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지웅 교수님과 연구 진행을 도와주신 기선완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표하며, 지도 교수님이신 오병훈 교수님과 신의진 교수님, 서일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저 자 씀.

## < 차 례 >

국문 요약 .....	1
I. 서론 .....	2
II. 연구대상 및 방법 .....	5
1. 연구대상 .....	5
2. 도구 .....	6
3. 통계 분석 .....	6
가. 인구학적 변인 .....	6
나. 검사-재검사 신뢰도 .....	6
다. 내적 일치도 및 문항-요인 상관관계 .....	6
라. 요인 분석 .....	7
III. 결과 .....	8
1. 인구학적 변인 .....	8
2. 검사-재검사 신뢰도 .....	8
3. 내적 일치도 .....	9
4. 문항-요인 상관관계 .....	9
5.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 .....	10
6. 기질의 요인 분석 .....	11
7. 성격의 요인 분석 .....	13
IV. 고찰 .....	15
V. 결론 .....	17
참고문헌 .....	18
영문요약 .....	20

< Table 차례 >

Table 1. Participants and response rate .....	5
Table 2. Frequencies of age .....	5
Table 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psTCI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	8
Table 4.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psTCI .....	9
Table 5.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psTCI .....	9
Table 6. Item-factor correlations .....	10
Table 7. Intercorrelations between K-psTCI factors .....	11
Table 8. Rotated factor pattern of temperament items in four-factor solution .....	12
Table 9. Rotated factor pattern of character items in three-factor solution .....	14

국문 요약

##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psTCI)”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Cloninger의 7-요인모델을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용하고자 고안된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psTCI)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 만 2-6세의 유치원 재학 남녀 아동 266명을 대상으로, 대상아동의 부모를 통해 아동의 기질-성격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psTCI)”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9명의 아이들에게 4개월 후 동일한 설문지로 재평가가 시행되었다.

결과 : 각 요인의 평균값을 남녀별로 비교해볼 때, RS, SD, ST 요인들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4개월 경과 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Pearson의 상관계수가 0.5-0.77로 나왔으며, 특히 NS, P, SD 요인들의 경우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r=0.72-0.77$ ).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62-0.78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에서는 4개의 기질 요인들 간에는  $r=0.05-0.23$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3개의 성격 기질들 간에는  $r=0.16-0.39$ 의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질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유가 2 이상의 요인들을 추출했을 때, 원안과 동일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개의 요인에 의한 설명량은 전체 변량의 34.81%였다. 성격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유가 2 이상의 요인들을 추출했을 때, 원안과 동일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의 요인에 의한 설명량은 전체 변량의 30.58%였다.

기질 및 성격의 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74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이 원안과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4개의 문항은 항목-요인간 상관관계에서도 낮은 값을 보이는 등 K-psTCI에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론 : K-psTCI는 원안과 비교하여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판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한국판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4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핵심되는 말 : 기질, 성격, 학령전기, K-psTCI

#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psTCI)”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지도교수 오병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진균

## I. 서론

기질(temperament)이란 감정반응, 기분변화, 그리고 자극으로 촉발된 반응성의 수준에 대한 개인의 특정한 양상으로 정의된다.<sup>1</sup> 일찍이 1950년대에 Thomas와 Chess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세심한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기질에 대한 9가지의 요인들을 고안했으며,<sup>2</sup> 이후 여러 학자들이 3세경의 이러한 기질들이 아동기의 행동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보고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질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는 reactivity와 self-regulation의 2가지 요인을 제기했던 Mary Rothbart의 연구<sup>3</sup>와 inhibited child와 uninhibited child로 구분했던 Jerome Kagan의 연구<sup>4</sup> 등을 들 수 있다.

기질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인 Thomas와 Chess의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sup>2</sup>는 다음의 3가지의 관찰에서 출발했다. 첫째, 생후 수 주 이내의 영아기부터 행동상의 개인차가 관찰되고,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양육 방법이 아동의 심리발달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당시의 주된 이론을 입증할만한 임상적 증거가 없으며, 셋째 아동의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지니치게 큰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Thomas와 Chess의 가설에 따르면, 아동의 고유한 행동양식은 상당부분 타고나는 것이며, 이 타고난 행동양식을 기질(temperament)라고 하였다. 이후 기질 연구는 정신의학 및 심리학의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들은 기질의 유전성,<sup>5-6</sup> 기질의 생리학적 근거,<sup>7-8</sup> 쌍생아 연구,<sup>9-10</sup> 기질의 문화적 차이<sup>11-12</sup> 등 광범위한 영역에 이른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기질연구에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기질의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것이다. 기질 특성에 따른 신생아 Dopamine beta-hydroxylase 농도 차이가 관찰된다<sup>13</sup>는 등의 연구보고가 있지만, 여전히 단순 사실에 불과하고 일관된 이론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14</sup>

정신의학 분야에서 국내 아동 기질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객관적인 기질 측정도구는 조수철 등의 “한국판



걸음마기 기질 평가척도”<sup>15</sup>와 Thomas와 Chess의 기질척도를 이용한 최성구 등의 “아동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sup>16</sup>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판 걸음마기 기질 평가 척도”는 평가 도구가 적용되는 대상(1-3세)과 연령상 차이가 있는 표본 집단(3-7세)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며, “아동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는 9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이 다소 낮게 나오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문항의 적절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한편 Cloninger 등은 성인의 인격(personality)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서 ‘7-요인 모델(seven-factor model)’을 완성했다.<sup>17</sup> 여기에서 그는 인격을 이루는 서로 다른 2개의 domain을 주장했는데, 이를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이라고 분류했다. 그의 기질에 대한 모델은 이전의 많은 기질연구의 영향을 수용발전시킨 것이며, 4개의 기질 요인은 각각 서로 다른 뇌내의 neuromodulatory pathway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sup>18</sup> 4개의 기질 요인은 다음과 같다: 새로움 추구(novelty seeking: 이하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이하 HA), 보상 의존(reward dependence: 이하 RD), 지속성(Persistence: 이하 P). 각각의 요인들은 특정한 자극-반응 양상을 나타내는데, NS은 행동의 시작을, RD와 P는 행동의 지속을, 그리고 HA는 행동의 억제와 관련된다.

7-요인모델에서 성격(character)은, 개인이 어느 정도 자기 지향적인가(self-directedness: 이하 SD, 자기 지향성), 개인이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cooperativeness: 이하 CO, 협조성), 개인이 커다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을 직관하는 능력, 즉 얼마나 자기 초월적일 수 있는가(self-transcendence: 이하 ST, 자기 초월성)의 3가지의 성격(character) 요인으로 조작화되었다. 이러한 성격(character)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발달되는 능력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다소간 유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Cloninger는 인격장애를 가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를 통해서, 각각 4개의 기질 요인의 낮고 높음의 조합에 따라서 그 환자의 인격장애의 특정 유형이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보여주었다.<sup>19</sup> 또한 그는 후속 연구에서 기질(temperament)은 환자의 특정 인격장애 유형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그 개인이 인격장애 자체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그는 인격장애의 유무는 주로 성격발달(character development)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SD 요인과 CO 요인의 낮은 측정값이 인격장애의 임상적인 진단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최근 Constantino 등은 어른의 인격에 대한 모델인 7-요인모델을 학령전기의 아동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2-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작된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preschool version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psTC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sup>20</sup>

본 연구는 Cloninger의 7-요인모델을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용하고자 고안된 psTCI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고자 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2003년 4월 한 달간,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의 5개 사립유치원과 1개의 공립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2-6세 사이의 학령전기 아동 646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Table 1). 한국어로 번역된 psTCI를 나이, 성별, 가족관계,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의 병력을 묻는 기초질문지와 함께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410부 중 27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7%였다. 회수된 278부 중에서 불완전하게 작성된 10부와 소아정신과적 문제를 가졌다고 응답한 1부, 그리고 만 7세가 넘는 아동의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66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남아는 141명으로 53%에 해당했으며, 여아는 125명으로 47%를 차지했으며, 연령별 분포는 Table 2와 같았으며, 남녀간의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value=0.36). 설문지 응답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축농증, 비염 등의 일반 의학적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32명은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소아정신과적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Table 1. Participants and response rate

Kindergarten	No. of children	Delivered test	Returned test	Completed test	Rate of completed for delivered test (%)
A	95	55	52	51	92
B	89	30	17	17	56
C	125	60	28	28	46
D	105	105	55	52	49
E	142	70	48	46	65
F	90	90	78	72	80
Total	646	410	278	266	64

Table 2. Frequencies of age\*

sex \ age	2	3	4	5	6	Total
male	0	6	22	105	8	141
female	1	7	29	83	5	125
Total	1	13	51	188	13	266

\* 200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함.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첫 설문을 시행한 지 4개월 후인 2003년 8월에 한 곳의 사립유치원에서 통계에 사용된 52명의 아동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다시 배부하여 19부의 유효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도 구

psTCI는 본래 자가설문 형식인 Cloninger의 기질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TCI)<sup>18</sup>를 Constantino 등이 학령전기의 아동에 적용하고자 변형시킨 것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설문을 통해서 아동의 성격기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sup>20</sup> 원저자인 Constantino의 동의를 얻어 먼저 저자가 psTCI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으며, 이후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역번역을 시행하였다. 역번역된 것과 원문을 비교하여 한국어 번역을 다시 재수정함으로써 “한국판 학령전기 기질성격검사(Korean version of preschool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K-psTCI)”를 완성하였다.

K-psTCI는 모두 74문항으로, 기질을 묻는 문항이 40문항, 성격을 묻는 문항이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작위로 섞인 74문항 중 32개의 문항은 5점 척도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3. 통계 분석

### 가. 인구학적 변인

K-psTCI의 7가지의 요인에 따른 남녀별 측정치를 구하고, 독립된 두 표본 t-test를 통해서 비교하였다.

### 나.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재검사를 통해서 수거된 19부의 설문지를 기초로, 7가지의 각 요인에 대한 총점에 대해 검사-재검사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 다.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및 문항-요인 상관관계(item-factor correlations)

문항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7가지의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총점과 그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 라. 요인 분석

먼저 7가지 요인의 상호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론적으로 기질과 성격의 요인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만큼<sup>17</sup>, 기질의 문항들과 성격의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40개의 기질(temperament) 문항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으며, 고유가가 1 이상인 12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60.6%를 설명하였다. 이 중 고유가가 2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면 4개의 요인이 추출되는데 이것이 원안의 4가지 기질요인(HA, NS, RD, P)과 거의 동일하여 이를 직교회전 방식(varimax rotated solution)으로 요인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34개의 성격(character) 문항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고유가가 1 이상인 11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60.1%를 설명하였다. 이 중 고유가가 2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면 3개의 요인이 추출되는데 이것이 원안의 3가지 성격요인(SD, CO, ST)과 거의 동일하여 이를 직교회전 방식(varimax rotated solution)으로 요인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모두 SPSS/PC, version 10을 이용하였다.

### III. 결과

#### 1. 인구학적 변인

7개의 요인에 따른 대상의 측정치들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RD, SD, ST 요인들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Table 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psTCI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factors	No. of items	mean $\pm$ S.D. (n=266)	mean $\pm$ S.D. (male, n=141)	mean $\pm$ S.D. (female, n=125)	P
HA	10	2.85 $\pm$ 0.59	2.85 $\pm$ 0.57	2.85 $\pm$ 0.63	n. s.
NS	9	2.67 $\pm$ 0.48	2.70 $\pm$ 0.45	2.64 $\pm$ 0.52	n. s.
RD	10	4.06 $\pm$ 0.40	4.00 $\pm$ 0.40	4.13 $\pm$ 0.40	0.009
P	11	3.33 $\pm$ 0.53	3.35 $\pm$ 0.54	3.31 $\pm$ 0.51	n. s.
SD	10	3.51 $\pm$ 0.49	3.45 $\pm$ 0.46	3.58 $\pm$ 0.51	0.038
CO	16	3.85 $\pm$ 0.42	3.80 $\pm$ 0.43	3.90 $\pm$ 0.42	n. s.
ST	8	3.51 $\pm$ 0.48	3.41 $\pm$ 0.47	3.61 $\pm$ 0.47	0.001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2. 검사-재검사 신뢰도

K-psTCI의 각 7개의 요인에 대한 검사-재검사 점수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 값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모두 상관계수  $r$  값이 0.50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NS, P, SD 요인의 값들은  $r$  값이 0.7을 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HA, CO, ST 값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Table 4.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psTCI (4-month, N=19)

factors	r	P
HA	0.51	0.024
NS	0.73	0.001
RD	0.65	0.004
P	0.72	0.001
SD	0.77	<0.001
CO	0.55	0.023
ST	0.50	0.029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3.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Table 5에 정리하였으며, 모두 0.62 이상으로 높았다.

Table 5.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psTCI

	Cronbach's alpha
HA	0.78
NS	0.63
RD	0.62
P	0.78
SD	0.71
CO	0.77
ST	0.62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4. 문항-요인 상관관계 (item-factor correlation)

각 7개의 요인과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74개의 모든 문항이 자신이 속한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P 값이 0.001 이하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부분의 항목들의 상관관계수 r 값이 0.40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28번 문항 (r=0.29), 41번 문항(r=0.26), 43번 문항(r=0.28), 그리고 45번 문항(r=0.33)에서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Item-factor correlations

	HA	NS	RD	P	SD	CO	ST
	2(0.48)	11(0.56)	4(0.45)	5(0.58)	13(0.55)	1(0.41)	15(0.48)
	3(0.42)	12(0.65)	9(0.54)	6(0.67)	23(0.65)	8(0.42)	45(0.33)
	14(0.60)	20(0.46)	21(0.51)	7(0.51)	28(0.29)	10(0.35)	48(0.58)
	19(0.59)	22(0.53)	35(0.58)	16(0.50)	29(0.63)	25(0.53)	50(0.68)
	30(0.64)	24(0.56)	55(0.44)	17(0.51)	36(0.69)	32(0.37)	53(0.40)
	31(0.68)	26(0.34)	67(0.41)	18(0.58)	37(0.49)	34(0.54)	66(0.60)
	33(0.51)	39(0.64)	68(0.48)	27(0.51)	40(0.53)	38(0.44)	71(0.45)
Item No.	46(0.50)	41(0.26)	70(0.47)	47(0.38)	42(0.50)	44(0.41)	73(0.67)
(correlation coefficient)	58(0.68)	57(0.42)	72(0.48)	52(0.68)	43(0.28)	49(0.59)	
	60(0.69)		74(0.46)	64(0.68)	51(0.67)	54(0.34)	
				65(0.56)		56(0.46)	
						59(0.65)	
						61(0.43)	
						62(0.62)	
						63(0.60)	
						69(0.49)	

all items :  $P < 0.001$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5.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

7요인간의 상호 상관관계는 Table 7에 정리하였다. HA는 SD와 높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57$ ), NS는 CO와 높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r=-0.54$ ). P는 SD와 높은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3$ ).

4개의 기질 요인들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 $r=0.05-0.23$ )를 보였으며, 3개의 성격 요인들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r=0.16-0.39$ )를 보였다.



Table 7. Intercorrelations between K-psTCI factors

Factor	HA	NS	RD	P	SD	CO	ST
HA	1.00						
NS	-0.06	1.00					
RD	-0.23**	0.07	1.00				
P	-0.18**	-0.19**	0.05	1.00			
SD	-0.57**	-0.21**	0.28**	0.43**	1.00		
CO	-0.19**	-0.54**	0.32**	0.25**	0.39**	1.00	
ST	-0.07	0.02	0.34**	0.34**	0.24**	0.16*	1.00

\*  $P < 0.05$  (2-tailed)

\*\*  $P < 0.01$  (2-tailed)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6. 기질의 요인 분석

40개의 기질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8로 정리하였다. 41번 문항(“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황한 경우, 아이는 빨리 안정을 되찾는다”)은 원안에서는 NS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HA 요인에서 높은 요인적재량(-0.512)을 보였다. 나머지 39개의 문항들은 원안과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HA(위험 회피) 요인은 전체 변량의 12.52%를, P(지속성) 요인은 전체 변량의 9.51%를, NS(새로움 추구) 요인은 전체 변량의 7.03%를, 그리고 RD(보상 의존) 요인은 전체 변량의 5.76%를 설명하였고, 4개의 요인에 의한 설명량은 전체 변량의 34.81%였다(Table 8).

Table 8. Rotated factor pattern of Temperament items in four-factor solution (varimax rotation) (N=266)

Factor	1 (HA)	2 (P)	3 (NS)	4 (RD)
Q 2	<b>0.47</b>			
Q 3	<b>-0.41</b>			
Q 14	<b>-0.50</b>			0.40
Q 19	<b>-0.58</b>			
Q 30	<b>0.56</b>			
Q 31	<b>0.68</b>			
Q 33	<b>-0.39</b>	0.34		
Q 41*	<b>-0.51</b>			
Q 46	<b>0.50</b>			
Q 58	<b>0.56</b>			-0.36
Q 60	<b>0.69</b>			
Q 5	0.34	<b>-0.50</b>		
Q 6		<b>0.64</b>		
Q 7		<b>0.46</b>		
Q 16		<b>0.48</b>		
Q 17	0.44	<b>-0.45</b>		
Q 18		<b>0.60</b>		
Q 27		<b>-0.41</b>	0.39	
Q 47		<b>0.37</b>		
Q 52		<b>0.74</b>		
Q 64		<b>0.74</b>		
Q 65		<b>-0.57</b>		
Q 11			<b>0.55</b>	
Q 12			<b>0.66</b>	
Q 20			<b>0.42</b>	
Q 22	-0.32		<b>0.54</b>	
Q 24	0.39		<b>0.52</b>	
Q 26			<b>-0.13</b>	
Q 39			<b>0.66</b>	
Q 57			<b>-0.45</b>	
Q 4				<b>-0.31</b>
Q 9				<b>0.58</b>
Q 21				<b>-0.46</b>
Q 35				<b>0.57</b>
Q 55	0.33			<b>0.37</b>
Q 67				<b>-0.40</b>
Q 68				<b>0.46</b>
Q 70				<b>0.51</b>
Q 72				<b>-0.50</b>
Q 74				<b>-0.41</b>
Eigen-value	5.01	3.80	2.81	2.30
% of variance	12.52	9.51	7.03	5.76
Cumulative %	12.52	22.03	29.05	34.81

Only loadings with absolute value  $\geq 0.30$  are shown.

\* This item was included in NS in the American version.

HA: harm avoidance, NS: novelty seeking,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 7. 성격의 요인 분석

34개의 기질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9로 정리하였다. 28번 문항(“요구 사항이 들어지지 않을 때, 아이는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은 원안에서는 SD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CO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45번 문항(“아이는 긴 산책을 좋아한다”)는 원안에서는 ST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SD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37번 문항(“아이는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과 43번 문항(“아이는 남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한다”)은 원안에서는 SD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ST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30개의 문항들은 원안과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CO(협조성) 요인은 전체 변량의 14.99%를, SD(자기 지향성) 요인은 전체변량의 8.57%를, 그리고 ST(자기 초월성) 요인은 전체변량의 7.02%를 설명하였고, 3개의 요인에 의한 설명량은 전체 변량의 30.58%였다(Table 9).

Table 9. Rotated factor pattern of Character items in three-factor solution (varimax rotation) (N=266)

Factor	1 (CO)	2 (SD)	3 (ST)
Q 1	<b>0.28</b>		
Q 8	<b>-0.30</b>		
Q 10	<b>0.37</b>		
Q 25	<b>0.52</b>		
Q 28*	<b>-0.26</b>		
Q 32	<b>0.34</b>		
Q 34	<b>-0.51</b>		
Q 38	<b>-0.39</b>		0.36
Q 44	<b>0.41</b>		
Q 49	<b>0.64</b>		
Q 54	<b>-0.32</b>		
Q 56	<b>0.43</b>		
Q 59	<b>0.68</b>		
Q 61	<b>0.35</b>		
Q 62	<b>0.61</b>		
Q 63	<b>0.63</b>		
Q 69	<b>-0.51</b>		0.42
Q 13		<b>-0.50</b>	
Q 23		<b>0.69</b>	
Q 29		<b>0.64</b>	
Q 36		<b>-0.72</b>	
Q 40		<b>0.52</b>	
Q 42		<b>0.53</b>	
Q 45**		<b>-0.22</b>	
Q 51		<b>0.65</b>	
Q 15			<b>0.42</b>
Q 37*		-0.36	<b>0.48</b>
Q 43*	-0.31		<b>0.32</b>
Q 48			<b>0.59</b>
Q 50			<b>0.66</b>
Q 53	-0.34		<b>0.40</b>
Q 66			<b>0.56</b>
Q 71			<b>0.41</b>
Q 73			<b>0.67</b>
Eigen-value	5.10	2.92	2.39
% of variance	14.99	8.57	7.02
Cumulative %	14.99	23.56	30.58

Only loadings with absolute value  $\geq 0.30$  are shown.

\* This item was included in SD in the American version.

\*\* This item was included in ST in the American version.

SD: self-directedness, CO: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 IV. 고찰

먼저 7개의 각 요인에 대한 남아-여아의 평균치 비교를 보면, 원안과 거의 유사하게 여아에서 RD, SD, ST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sup>20</sup> 각 평균치와 미국 원안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남아의 CO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에서 0.5 표준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CO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3.80으로 원안의 3.23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원안의 경우 유치원 교사가 평가했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가 직접 평가했으며 이로써 다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평가-재평가 신뢰도의 경우 최성구 등의 연구<sup>16</sup>의 신뢰도( $r=0.63-0.80$ )에 비하여 조금 낮은 값( $r=0.50-0.77$ )을 보였으나, 이는 기질의 특성상 다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설문지와 함께 아이의 일반적 상태에 대해 함께 보고하게 하였는데, 재검사의 경우 “아이의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개선되었다”, “아이의 사회성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 보고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이는 HA, CO 요인의 시간에 따른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의 기대나 편견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좀 더 장기간의 전향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변화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항-요인 상관관계에서는 대부분 만족할 만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그러나, 28번 문항, 41번 문항, 43번 문항, 45번 문항에서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 $r=0.26-0.33$ )를 보였으며, 또한 이 문항들은 모두 요인분석에서도 원안과는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어서 향후 한국판 문항개발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안과 동일하게 항목을 설정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할 경우 원안(alpha : 0.7-0.93)보다는 조금 낮은 alpha 값을 보였으나 비교적 높은 값(0.62-0.78)을 보여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원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원안에 비해 요인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더 낮게 나왔다. 특히 4가지의 기질들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적은 것은 이들이 독립적인 dimension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원안과 비슷하게 나타난 SD 요인과 CO 요인간의 높은 상관관계( $r=0.39$ )는 이 두 요인이 같은 성격발달의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질의 요인분석에서는 41번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원안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sup>20</sup> 41번의 문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황한 경우, 아이는 빨리 안정을 되찾는다”라는 질문으로 경험적으로도 원안의 NS 요인보다는 HA 요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어 문항의 타당도가 의심된다.

성격의 요인분석의 경우에는 4문항이 원안과는 다르게 분류되었는데, 37번 문항을 제외한 3문항 모두 요인분석과 문항-요인 상관관계에서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왔으며, 경험적으로 문항을 검토해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질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적절한 준거(criterion)를 설정하지 못하여 준거 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구하지는 못했으나, 요인분석 및 미국 원안과의 각 요인의 평균치 비교를 통하여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및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가 획득되어졌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3가지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겠다. 먼저 연구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과연 기질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기질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 -Buss, Plomin, Rothbart, Bates, Eysenck, Carey, Strelau, Goldsmith, Campos, Cloninger, Chess, Thomas-은 기질의 정의로 다음의 4가지 특징에 동의한다.<sup>21</sup> 즉 1) 개인에 따라 다른 것, 2)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비교적 변화가 없는 것, 3) 다소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 4) 발달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 등이다. 또한 기질은 정신병리의 역치하 증상(subthreshold symptoms)과도 구별되어야 하며, 음악적, 운동적 재능과도 구별되는 주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양상만을 측정하여야 한다.<sup>22</sup> K-psTCI는 개인에 따른 차이, 발달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 주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양상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으나, K-psTCI의 각 요인들이 유전학적,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항목인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이는 기질의 연구에서 개념타당도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기질의 현상학적 연구와 함께 유전학적, 생물학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연구방법에의 제한점이다. K-psTCI는 대상 아이의 부모가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기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지를 통한 기질의 평가가 가지는 문제점들은 1) 일상생활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측정이 제한된다는 점, 2) 요인분석에 의해서 요인을 찾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소수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중요한 기질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3) 기질의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여러 다른 기질특성들을 구분없이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21</sup> 또한 대상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측정의 오차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전 Seif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기질 특성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다른 관찰자의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겨우 0.2에 그쳤다는 보고가 있다.<sup>23</sup> 향후 설문지법을 보완하는 직접 관찰법, 부모 이외의 관찰자에 의한 평가 등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비교적 작은 표본수를 가진다는 점과 지역적으로 대전 서구의 작은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정신병리를 가진 군을 직접 면담을 통해 제외하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고유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K-psTCI는 원안과 비교하여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판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한국판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4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K-psTCI는 국내의 다른 아동 척도들과의 비교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 기질의 생물학적 원인을 찾고, 정신병리와의 관련성, 인격장애로의 진행 여부 등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Goldsmith HH, Buss AH, Plomin R, Rothbart MK, Thomas A, Chess S, Hinde R, McCall RB.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 1987;58:505-529.
- 2) Thomas A, Chess S.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Mazel;1977.
- 3) Rothbart MK.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 1988;59:1241-1250.
- 4) Kagan J, Arcus D, Snidman N. A cross-national comparison. *Dev Psychol* 1994;30:342-345.
- 5) Buss AN, Plomin R, Willerman L. The inheritance of temperament. *J Personality* 1973;41:513-524.
- 6) Goldsmith H, Gottesman F. Origins in variation in behavioral style. *Child Dev* 1981;52:91-103.
- 7) Torgerson AM, Kringlen E. Genetic aspects of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infa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78;17:433-444.
- 8) Buss AH, Plomin R.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1975.
- 9) Resnick J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Rosenberg A.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A follow-up study. *Child Dev* 1986;57:660-680.
- 10) Kagan J, Resnick JS, Snidman N, Gibbons J, Johnson MO.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 1988;59:1580-1589.
- 11) Banks E. Temperament and individuality: a Study of Malay children. *Am J Orthopsychiatry* 1989;59:390-397.
- 12) De Vries MW, Sameroff AJ. Culture and temperament: Influences on infant temperament in three East African Societies. *Am J Orthopsychiatry* 1984;54:83-96.
- 13) Rapoport JL, Pandoni C, Renfield M, Lake CR, Ziegler MG. Newborn Dopamine beta-hydroxylase, minor physical anomalies, and infant temperament. *Am J Psychiatry* 1977;134:676-679.
- 14) 홍성도. 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97;8:50-56.
- 15) 조수철, 김종훈, 최진숙. 한국판 걸음마기 기질 평가척도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2;31:363-383.



- 16) 최성구, 김승태, 이소영,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 아동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의 한글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201-209.
- 17) Cloninger CR, Svrakic DM.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character. Psychiatry 1997;60:120-141.
- 18) Cloninger CR, Przybeck TR, Svrakic DM, Wetzel R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St. Louis;1994.
- 19) Cloninger CR.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 Gen Psychiatry 1987;44:573-585.
- 20) Constantino JN, Cloninger CR, Clarke AR, Hashemi B, Przybeck T.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2002;109:229-243.
- 21) Kagan J. Galen's prophecy. New York: BasicBooks; 1994.
- 22) Carey WB. Obsessive difficult temperament. to the edito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7;36:722.
- 23) Seifer R, Sameroff AJ, Barrett LC, Krafchuk E. Infant temperament measured by multiple observations and mother report. Child Dev 1994;65:1478-1490.

Abstrac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eschool version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K-psTCI)**

Jin Kyun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oung Hoon O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eschool version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K-psTCI).

**Method :** We tested the K-psTCI in 266 children aged 2-6 years. Test-retest reliability was evaluated in 19 subjects over a 4-month period.

**Result :** In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female subjects had the greater mean value than male ones in RS, SD, ST factors. Test-retest reliability was moderately high (Pearson's  $r$  values: 0.5-0.77). Especially test-retest reliability in NS, P, SD factors was high ( $r$  values: 0.72-0.77). The K-psTCI demonstra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for each of the 7 factors (Cronbach's alpha values: 0.62-0.78).

Inter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4 temperament factors were low (Pearson's  $r$  values: 0.05-0.23) and inter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3 character factors were moderate (Pearson's  $r$  values: 0.16-0.3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ovided support for the presence of distinct domains of temperament (comprising 4 factors) and character (comprising 3 factors) like the American version of the psTCI.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psTCI items, we found the 5 items which were categorized differently to the American version of the psTCI.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K-psTCI has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we have been suggested that the 4 items were inappropriate in the K-psTCI.

---

Key words : temperament, character, preschool, K-psTCI

# 아동 기질에 대한 부모 설문지

## K-ps TCI (Korean version of preschool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본 설문지는 학령전기의 **정상 아동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한 부모용 설문지입니다.

아동의 기질은 향후 아이의 인격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써, 양육과는 관계없는 타고난 아이의 인격적 소양을 말합니다. 이 설문지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신의 자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완전히 그렇다, 이렇게 5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의 자녀와 비슷한 연령에 있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상기의 정보내용은 우리 나라 정상 아동의 기질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동의 기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답신을 병원의 부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양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

## 아동 기질 설문지 (1)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완전히 그렇다.
<b>적당한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시오.</b>				
1. 아이는 가려다가 지적된 곳이 '출입금지' 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1 2 3 4 5
2. 아이는 쉽게 두려워한다.				1 2 3 4 5
3.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스트레스로부터 더 빨리 회복된다.				1 2 3 4 5
4. 아이는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1 2 3 4 5
5. 어려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면, 아이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6. 아이는 시작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끝내려고 결심하고 있다.				1 2 3 4 5
7. 아이는 오랜 시간동안 한 가지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1 2 3 4 5
8.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때, 아이는 이제 '자기 것'만 가지고 놀기 보다는 '주고-받기' 놀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1 2 3 4 5
9.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0. 아이는 누군가 자신을 해코지한 경우 보통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1 2 3 4 5
11. 아이는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냉정을 잃는다.				1 2 3 4 5
12. 아이는 소란스럽고 모든 일에 참견한다.				1 2 3 4 5
13. 아이는 독립적이다.				1 2 3 4 5
14. 아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15. 아이는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6. 아이는 퍼즐 맞추기를 즐긴다.				1 2 3 4 5
17. 아이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18. 아이는 자신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밀어붙인다.				1 2 3 4 5
19. 아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거의 언제나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 보인다.				1 2 3 4 5
20. 아이는 두목 행세를 한다.				1 2 3 4 5

## 아동 기질 설문지 (2)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완전히 그렇다.
<b>적당한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시오.</b>				
21. 아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22.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만있지 못하고 활동적이다. 23. 아이는 주도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다. 24. 아이는 작은 일에도 쉽게 냉정을 잃는다. 25. 아이는 학급에서 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26. 아이가 냉정을 잃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27. 아이는 장난감에서 다른 장난감으로 빨리 이동한다. 28.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을 때, 아이는 바로 화를 내기보 다는 보호자(엄마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29.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많이 믿지 못하는 것 같다. 30.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31.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부모에게 매달린다. 32. 아이는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33. 아이는 새로운 물건을 다루게 되면, 자주 대담해지곤 한다. 34.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정리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다. 35.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한다.  36. 아이는 자신감이 있다. 37. 아이는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38.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든 나누기를 좋아한다. 39. 아이는 쉽게 산만해진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40. 아이는 익숙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봐주기를 원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아동 기질 설문지 (3)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완전히 그렇다.
<b>적당한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시오.</b>				
41.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황한 경우, 아이는 빨리 안정을 되찾는다.				1 2 3 4 5
42. 아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자주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43. 아이는 남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1 2 3 4 5
44.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는 평소 파괴의 주제를 보이곤 한다.				1 2 3 4 5
45. 아이는 긴 산책을 좋아한다.				1 2 3 4 5
46. 아이는 쉽게 깜짝 놀란다.				1 2 3 4 5
47. 아이는 자신이 하던 일을 끝마치기 전에, 하던 일을 중단하기를 자주 거부한다.				1 2 3 4 5
48.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인 척 행세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49. 아이는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50. 아이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가상놀이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51. 아이는 자기 독립적으로는 거의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				1 2 3 4 5
52. 아이는 다소 완벽주의자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자신이 끝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				1 2 3 4 5
53.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는 자주 사람들이 서로 돕는 주제를 보이곤 한다.				1 2 3 4 5
54.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 받는 것을 보통 인정한다.				1 2 3 4 5
55. 아이는 당황한 경우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56.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할 때, 아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57. 아이는 자신이 원하지만, 당장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기다릴 수 있다.				1 2 3 4 5
58.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 아동 기질 설문지 (4)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완전히 그렇다.
<b>적당한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시오.</b>				
59.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의 활동을 할 때, 아이는 통제 불가능하다.				1 2 3 4 5
60. 자신에게 낯선 방에 들어갈 때, 아이는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다.				1 2 3 4 5
61. 집에서 멀리 떠나있을 때, 아이는 반항적이다.				1 2 3 4 5
62. 아이는 집에서 반항적이다.				1 2 3 4 5
63. 아이는 침입적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자주 침범하거나 방해한다.				1 2 3 4 5
64. 아이는 성공할 때까지 작업을 고수한다.				1 2 3 4 5
65. 아이는 일이 약 10분 이상 지속되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				1 2 3 4 5
66.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아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인 체 가장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67. 아이는 폭 안기는 것에 저항한다.				1 2 3 4 5
68. 아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기운을 얻는다.				1 2 3 4 5
69.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것 같다.				1 2 3 4 5
70. 아이는 다른 사람이 다독여 주거나 안심시켜 주면, 안달복달하던 것을 멈춘다.				1 2 3 4 5
71. 아이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매우 큰 기쁨을 표현한다.				1 2 3 4 5
72.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미소 짓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73. 아이는 '소꿉놀이' 혹은 다른 역할-가장 놀이를 즐긴다.				1 2 3 4 5
74. 아이는 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통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1 2 3 4 5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동 기질 분석의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1. 아동의 이름과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름 \_\_\_\_\_ 성별 \_\_\_\_\_

2. 아동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십시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아동은 몇 남 몇 녀 중 몇 째입니까?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째

4. 아동에게 소아과 질병이 있습니까?

1) 예 ( )

만약 병명을 안다면 적어주세요 (\_\_\_\_\_)

2) 아니오 ( )

5. 아동에게 소아정신과적 질병이 있습니까?

1) 예 ( )

만약 병명을 안다면 적어주세요 (\_\_\_\_\_)

2) 아니오 ( )

6.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모님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_\_\_\_\_  
\_\_\_\_\_  
\_\_\_\_\_

7. 부모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서면 답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8. 설문지 작성일

\_\_\_\_\_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